# 셀트리온 렉키로나, 머크·화이자 맞설 경구용치료제 급부상

렉키로나, 환자 2.1만여명에 투여 "1회 투여만으로 치료효과 기대"

EC승인 이후 타국 문의도 증가 30여개 국가와 공급협상 진행중

셀트리온이 개발한 '렉키로나'가 유 럽에서 코로나19항체치료제 처음 품목 허가를 받으며 머크・화이자 등에 맞설 경구용 치료제의 대항마로 떠올랐다. E C 승인 소식 이후 다른 국가들에도 문 의가 증가하고 있어 수출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 ◆EMA, 이례적인 품목허가

셀트리온은 지난 12일(이하 현지시 간)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로부터 '정식 품목허가'를 획득했다고 15일 밝 혔다. 렉키로나가 지난 11일 유럽의약 품청(EMA) 산하 약물사용자문위원회 (CHMP)로부터 '승인 권고' 의견을 획 득한지 하루만에 EC로부터 '정식 품목 허가'를 획득한 것이다.



'렉키로나주'를 살펴보는 의료진.

이로써 렉키로나는 유럽에서 정식품 목허가를 획득한 국내 최초의 항체 신 약 지위를 확보했다.

통상, 신약 허가를 위해 CHMP가 승 인 권고를 내리면 1~2개월 후에 EC의 최종품목허가가완료되지만,이례적으 로 하루 만에 정식 품목허가까지 이어 졌다. 회사측은 유럽내 코로나19 확진 자 수가 다시 급증하면서 이에 따른 EC 차원의 노력으로 해석하고 있다. 렉키 로나 이전에 유럽에서 승인을 받은 코 로나19 치료제는 길리어드사이언스의 '렘데시비르'가 유일했다. 렉키로나는 지난 7월과 8월, 인도네시아와 브라질 에서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이후 꾸준한 처방이 이뤄지고 있다.

정맥주사 형태의 렉키로나가 곧 승인 을 앞둔 머크, 화이자 등 코로나19 경구 용치료제의대항마로떠오를지도주목 된다. 렉키로나는 국내에서 지난 9월 정 식 품목 허가를 획득한 이후 현재까지 2 만1366명의 환자에게 투여가 이루어졌 다. 회사측은 경구용 치료제 출시 이후 에도 렉키로나의 수요는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현재까지 개발 된 경구치료제는 일정 기간 지속 투약 해야한다는 번거로움이 있는 반면, 렉 키로나는 1회 투여만으로도 치료 효과 를 기대할 수 있다"며 "특히 입원 환자 의 경우 단회 투여 방식의 렉키로나가 경구치료제보다 훨씬 더 편리하고 빠르 게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유럽 넘은 치료제. 수출 날개다나

렉키로나가 까다로운 유럽의 승인을 통과하면서 수출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 된다. 현재 셀트리온헬스케어는 30여개 국가와 렉키로나 공급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EC의 품목 허 가 소식이 전해진 이후 다른 국가로부 터의 관련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며 "각 나라와의 협상이 마무리되는 즉시 제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현지 법인간 긴밀한 소통에 나서겠다"고 말

렉키로나는 지난 7월과 8월, 인도네 시아 식약처(BPOM)와 브라질 식약위 생감시국(ANVISA)으로부터 긴급사 용승인을 획득했으며, 지난 9월에는 국 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정식 품목 허가를 받았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EMA가 렉키로 나에 승인 권고를 내린 지 하루 만에 E C에서 정식 품목허가를 내준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글로벌 공급에 박차를 가해 유럽내 많은 코로나19 환자들이 렉키로나의 검증된 안전성과 효과의 혜 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범세 계적 코로나19사태 종식에도 기여하도 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 10월분 카드 캐시백 810만명에 평균 4만8000원 지급

기재부, 10월 총 지급액 3875억 전체예산 7천억의 55.4% 수준 카드 결제시 캐시백 먼저 차감

정부의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 백) 사업에 따라 15일부터 총 810만명 이 평균 4만8000원의 캐시백을 받게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상생 소비지원금 신청자는 총 1509만명이 고, 10월분 카드 사용액에 따라 전체 참 여자의 55%인 810만명에게 1인당 평균 4만8000원의 캐시백을 지급한다. 이중

169만명은 캐시백 최대 한도인 10만원 을 받게 된다.

10월분 캐시백 지급액은 3875억원으 로 전체 예산(7000억원)의 약 55.4% 수 준이다.

15일 0시부터 참여자의 전담 카드사 카드로 지급된다. 신한·하나·현대·NH 농협 카드는 0시, 삼성카드는 오전 7 시, KB국민은 오전 9시, 비씨·우리카드 는 10시, 롯데카드는 오후 3시부터 각각 지급하다.

캐시백은 지급 즉시 사용할 수 있고, 카드 결제 시 먼저 차감된다. 국민지원 금 등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받 은 타 지원금이 있을 경우 사용기한이 빠른 순서대로 차감된다.

캐시백은 내년 6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하지 않고 남은 돈은 사라 지고,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상생소비지원금은 올해 2분기(4~6 월) 월평균 신용·체크카드 사용액보다 10~11월에 3% 넘게 더 쓰면 이 초과분 의 10%를 현금성 충전금으로 돌려주는 지원 사업이다. 관련 예산은 7000억원 으로 재원 소진 시에는 사업이 조기 종 료될 수 있다.

예컨대, 2분기 월평균 100만원을 쓴 사람이 10월 한 달간 153만원을 쓰면 3%인 3만원을 뺀 초과분 50만원 중 10%인 5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2개월 간 월 한도 10만원씩 최대 20만원이다.

대상자는 만 19세 이상 국민으로 2분 기 신용•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어야 한다. 국내 소비 증진 목적으로 외국인 도 포함했다.

정부는 방역 상황을 고려해 대면과 비대면 소비를 병행 지원하되 국민 편 의를 위해 카드 사용처를 대폭 늘렸다.

스타벅스, 파리바게뜨 등 프렌차이 즈카페와 편의점, CGV 등 영화관과 롯 데월드 등 놀이공원도 실적이 인정된 다. 전통시장, 음식점, 미용실은 물론 이마트에브리데이 등 기업형 슈퍼마켓 (SSM), 호텔, 가구·인테리어점도 포함 된다.

배달의 민족 등 배달앱과 숙소•여행• 공연상품 등 비대면 온라인 결제 시에 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이마트 등 대형마트와 백화점, 복합쇼핑몰, 면세점, 명품전문매장, 대 형 전자 전문 판매점, 홈쇼핑, 유흥업 종, 사행업종, 그리고 신규 자동차 구입 등은 제외된다.

기재부는 11월분 캐시백 지급예정액 은 지난 12일까지 총 510억원으로 집계 됐다고 밝혔다. 이 캐시백은 11월 15일 지급될 예정이다. 기존 참여자는 별도 신청 없이 계속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참여하지 않았다면 11월에도 신청이 가 능하다.

캐시백 신청을 하려면 롯데, 비씨, 삼 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 H농협 등 9곳 가운데 하나를 전담 카드 사로 지정해야 한다. 이후 카드사에서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캐시백 내용을 안내한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 尹 "양도소득세율 인하로 주택거래 촉진"

### >> 1면 '대선쟁점 부동산'서 계속

윤 후보는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종부세는 납세 대상자의 수가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많은 세금이며 재산세와 동일한 세원에 대한 이중과 세, 조세평등주의 위반, 재산권 보장원 칙 위반, 과잉금지의 문제 등이 쟁점이 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윤 후보는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 해소와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해 기존 주택의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하고,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낮춰 보유세가 급증하는 것을 막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하와 장기보유 고령층 1세대 1주택 자에 대해서는 매각하거나 상속할 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5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열린 만화로 읽는 오늘의 인물이야기 '비상대책위원장-김종인' 출 판기념회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는 아예 종부세 를재산세에통합하거나 1주택자에대 해서는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고 덧붙였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